

광주 군공항 부지 개발 로드맵 연내 발표

세계적 테마파크 조성 관심

상무지구 면적의 2.5배

시공무원들 중구 상하이 답사

디즈니랜드 등 유치 검토

스마트시티 내용도 구체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국제테마파크 조성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군 공항 부지 개발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광주 공항 이전 문제가 수많은 난제 속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기업 시내 면세점 사업자 유치 등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테마파크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시 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0대 시책으로 정한 '군 공항 중전부지 로드맵 수립'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24년 군 공항이 전남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전제 아래 2028년까지 광주 공항 중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및 테마파크' 개발을 완료한다는 기본 구상을 갖고 있다.

상무지구 면적의 2.5배, 여의도의 3배에 달하는 8.2㎢(250만평) 수준의 광활한 군 공항부지에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국제테마파크와 함께 광주 또는 군 공항 부지 전체를 견인할 기업 또는 시설을 유치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방향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올 6월 중국 상해를 찾아 국제테마파크 박람회를 참관하고, 상해 디즈니랜드 조성에 관련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지며 개발 구상을 가다듬었다. 상하이 국제테마파크 박람회에는 놀이공원, 테마파크, 워터파크, 리조트 등 관련기업이 참여하고, 세계 60개국에서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경우 120만평 규모로 매년 입장료 수입만 7300억원에 이르고, 약 17조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광주시는 공항 부지에 기본적으로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스튜디오 또는 이와 유사한 테마파크를 직접 조성하거나 유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광주시는 국제적 권위자로 평가받는 디자이너, 건축가, 금융전문가, 교수 등과 정례 협의를 거치며 테마파크 조성 및 함께 광주를 견인하거나 상징할 만한 기업 및 시설을 군 공항 부지에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세종시하현 행정중심도시, 캐나다의 '사이드워크 토포' 하현 구획의 도시로 불려지듯 광주군공항 부지에 이러한 형태의 상징성과 경제성을 갖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내 도시 어떤 곳도 25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는 없다.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직접 그려 넣는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이 이뤄진다면 테마파크든, 국제적 기업 유치든 허황된 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발표하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30일 "국방부와 전남도, 후보지 기초단체가 법률에서 정한대로 절차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방부는 국제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속히 이전 대상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면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관계없다. 무작정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법대로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군 공항 이전과 중전부지 개발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광주시가 신공항 건설과 지원 사업비를 우선 제공하고, 국방부 소유의 군 공항 이전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4년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건의를 할 당시 총 사업비 규모는 5조7480억원 수준이었으나 부지개발 방식, 투자자 유치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사업비는 유동적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평화의 소녀상 앞 무궁화 심기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무궁화 동산이 조성됐다. 광주시는 30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300여 명의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및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무궁화 100주를 식재했다. ▶관련기사2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진첩·동영상 등 보안사 확보 자료 곧 공개”

5·18 새로운 진실 밝혀지나

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사의 자료들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존의 비공개 조건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그동안 묻혀있었던 5월의 진실이 새로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30일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해 7월 보안사가 확보하고 있었던 80년 5월 항쟁 사진첩 13권과 마이크로 필름, 비디오 테이프, 각종 문서 등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관 자료들에 대해 5·18 진상조사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비공개할 것을 요구해, 일반 공개의 길은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목포시)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80년 5월 당시 생산한 사진첩 13권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질의 과정에서 '5·18 사진첩 공개'와 관련,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군안보지원사령부 등과의 협의-검토해 이르면 시일내에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도 조만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자료의 비공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80년 5월 항쟁 당시 보안사가 확보한 사진첩과 동영상, 마이크로 필름 등이 공개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최고의 정보기관이 확보한 자료라는 점에

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들이 다시 조망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폭발, 5·18 진상규명위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5월의 진상 규명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전망이다. 여기에 지만원씨 등 5·18 민주화운동 왜곡·편향 세력들에게 보안사에서 생산한 사진들의 유출 여부 등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다음 주 열리는 상임위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즉각적인 자료 공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내년이면 5월 항쟁 40주년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진상 규명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시장·전남지사 올 첫 만남…꼬인 공동현안 매듭 풀까

내달 25일 상생발전위원회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 들어 처음으로 마주앉는다. 시도 수장의 만남이 군 공항 이전 문제와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 쟁여있는 지역 현안들의 매듭을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양 사·도는 내달 2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연다. 위원회에는 이 시장과 김 지사를 비롯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가 공

식 회동을 갖고 광주·전남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이들은 이번 만남을 통해 기존 상생발전 전 과제(35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 선정된 신규 협력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특히 기존 과제에 더해 빛가람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이나 복합혁신센터 건립,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 신규 협력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떤 결과를 내

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착권 일각에서는 양 사·도지사가 상생발전위원회에 앞서 비공식적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양 사·도는 올해 처음 열리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위해 다음달 6일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주축으로 실무협의회를 열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가을음악회

영화가처럼...

할리우드 영화음악 연주·작곡가 **백진주와 친구들**

바이올린 백진주
UCLA 음악학 박사
영화음악 연주 & 작곡가
주요작품: 타이타닉, 해리포터, 캐러비안의 해적 등 약 800여편
민중 평등 위원회 초청 연주자
미 대사관 - 인도, 러시아, 필리핀 초청 연주자
청와대 여성포럼 초청연주 - 노무현 대통령
백악관 대통령의 날 초청 연주 - 레이건 대통령

EN voice
광주 시립합창단으로 구성된 클래식 단체로 클래식 뮤지컬 코러스 오버 등 다양한 음악을 연주

국악인 송은영
광주광역시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명창 이수자
국립민속국악원 중단원 역임
가야금명창 대학재 대상 수상
일명왕 국악제 최우수상 수상

소프라노 유경민
Italy, Concorso Nazionale per Giovani Musicisti the Grand Prize
Korea & China 광주우 문화 교류 초청 콘서트
민중 평등 초청 통일 하나로 콘서트
파키스탄, 태국, 인도 등 문화교류 초청 콘서트

일시 | 2019년 11월 5일 오후 7시 장소 |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플리곤